

딸기 명성 회복 적극 나서

남원시, 원예산업 집중 육성

남원시가 원예산업의 집중 육성에 나서며 과거 전국을 강타했던 남원딸기 명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남원딸기는 10년 전인 2000년 후반까지만 해도 전국 생산(당일 총경매금액)의 5%를 차지할 정도로 명성이 높았으나, 딸기 농가의 고령화로 인한 토경재배에 머무르면서 최근에는 전국 생산가가 1.8%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고설딸기(양액재배)를 재배하는 27개 농가가 남원고설딸기연구회를 결성하고 생산기술 향상과 품질개선, 생산량을 올려 농가소득을 높인다는 복안이며, 남원고설딸기 재배면적은 210동 14ha에 이르고 있다.

최근 남원시에서는 원예산업과 농업기술센터, 관내 3개 농협, 40여 고설딸기 재배농가가 참가한 가운데 남원고설딸기 연구회 창립총회를 갖고 기술개발과 품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하우스 동당(680㎡) 조수익 2,000만원 이상을 올



지난 8일 남원 고설딸기연구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린다는 계획이다.

남원고설딸기 연구회는 먼저 회원들에게 선진재배 기술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통해 생산농가의 기술력을 높이고, 문제 해결법을 구성해 재배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농가들에게 현장지도를 펼치기로 했다.

경매시장을 방문해 남원딸기를 홍보하는 한편, 현재 약 20%선인 고설재배 면적을 40%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며, 품질도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로

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금실 재배면적을 늘린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고설재배는 토경재배에 비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 유통기간이 길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수확 시기가 한달 이상 빨라 농가소득이 높을 뿐만 아니라 6월까지 수확할 수 있어 토경재배에 비해 수확량이 월등히 많은 이점을 갖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 교육 실시

순창군이 올 1월부터 시행되는 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PLS)의 홍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며, 사용했을 경우 잔류허용기준을 0.01mg/kg이하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 군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13회에 걸쳐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별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7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252개 마을을 순회하며 실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순창군은 PLS가 농업현장에 정착되도록 농가 피해가 없도록 고

령 농업인이 자주 방문하는 관내 경로당 370개소를 방문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 드라마 형식의 교육영상과 포스터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농업인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구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PLS 제도에 따라 잔류농약 안전성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출하가 연기되거나 용도전환, 폐기,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된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농약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PLS 교육의 자세한 일정은 순창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farm.sunchang.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이 올 1월부터 시행되는 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PLS)의 홍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지난 7일부터 2월 28일까지 252개 마을을 순회하며 실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심 민 임실군수, 군민체감형 일상행정 강력 주문

"군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에 최선을 다해달라"

심 민 군수가 2019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회에서 강조한 일이다.

"올해는 군민의 일상을 먼저 챙겨 다들행복한 임실군을 만들겠다"는 군민체감형 일상행정을 강조한 심 군수의 강한 의지를 피력한 말이다.



심 민 군수가 2019년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회를 열었다.

산 관광지 개발 △임실천 경관개선 △임실군 다목적체육관 건립 △임실군 노인복지관 건립 등 임실군 10대 사업이다. 군은 이번 주요 업무보고에 논의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신속한 정점사항 해결과 한발 앞선 정책들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전라북도 으뜸도시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원년의 해로 삼자는 임실군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심 군수는 보고회에서 "수치상

의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일상에서 체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열의와 신념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각 분야별 핵심 사업들을 꼼꼼히 챙겨 상반기 중 가시적인 성과 달성과 함께 군정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 등 민선 7기 성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수도작 농기계 대폭 지원

순창군농업기술센터는 벼농사에 필요한 농기계를 조기 지원하고 나설 예정이다. 농기계는 곡물건조기, 논두렁조성기 등 11개 기종으로 2억7천2

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농민들의 목숨을 들어야 한다"면서 "어르신들이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농기계 지원

사업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추가 지원이 농기계 물량 파악과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2월중에 지원을 완료하고, 추가 소요량은 추경예산을 확보해 재차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명품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남원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1월 31일까지 2019년 명품농업대학 입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명품농업대학은 주1회, 연 25회 내외 100시간과정으로 70%이상 출석률에 합격이 가능하며, 2019년도 과정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요구도가 높은 친환경농업, 포도, 딸기 3개 과정이 개설되었다.

친환경농업, 포도, 딸기반은 각 40명씩 120명으로 친환경농업반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이론 및 유기농자재 만들기 실습, 포도반과 딸기반은 각각 고품질 생산기술과 가공실습으로 운영 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남원시

농업인 및 농업을 희망하는 시민이며 이백면소재 농업기술센터 또는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입학원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합격자 발표는 2월 19일, 입학식은 3월 8일 진행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와 각 읍면상담소에 비치된 모집요강과 남원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명품농업대학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에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제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이라며,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지역 매 아리

남원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아

남원시는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으로 신고 납부하면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홍보하며 신청을 당부했다.

연납을 하면 2,000CC급 신규 승용차의 경우 (연간세액 52만원) 약 5만2천 원정도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으며, 1월중 연납하고자 하는 사람은 1월중 남원시청 재정과(전화620-6272)나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신청 할 수 있고,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신청 및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은행의 CD/ATM이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포털, 인터넷뱅킹) 납부 등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며 온라인 납부가 어려운 경우 고지서를 지참 은행 창구에 2019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 3. 6. 9월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각각 1년간 2회에 걸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총액의 10%, 7.5%, 5%, 2.5%를 할인받게 된다.

남원시는 지난 1월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의 호응이 좋아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해 7,618건보다 20.5% 증가한 9,180건이 신청 납부하는 결과로 이어 졌으며, 이는 남원시가 지속적으로 펼친 적극적인 납세홍보와 저금리시대를 맞아 차량소유자들이 절세효과가 큰 연납신청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의회 임시회 폐회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는 15일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4일부터 12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28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전반에 대한 각 부서별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했다.

임실군 신덕면 수현리 토양정화방 변경등록 수리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수리 철회 및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전라북도에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신대용 의장은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지적하거나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책을 강구하여 줄 것"과 "2019년 한 해는 임실발전을 견인하는 역동적인 결핵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한마음으로 결집하여 새로운 군정의 모습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자세로 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